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

백경아¹ · 권혜진² · 류승희¹

중앙대학교 대학원¹, 중앙대학교 간호대학²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Baek, Kyoung Ah¹ · Kwon, Hye Jin² · Ryu, Seung Hee¹

¹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²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A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type was used. Forty-three high school students classified 40 selected Q-statements into 9 points standard.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pc-QUANL program. **Results:** High school students'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were analyzed into two types: Type 1 turned out to be 'FOLS (family oriented life style)' and Type 2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Conclusion:**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as low birth rate and the advanced age of the population, effective youth and adult programs, policy and institution are required. The current demographic, economic and other factors such as personal values and policies may lower birth rate. In particular, youths' need for children and birth rate tend to be lower.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patterns in high school students'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Thus, national and social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negative factors into positive ones. In order to maintain positive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apply family-centered educational programs and to implement birth-friendly and realistic programs for promoting child birth.

Key Words: Childbearing, High school students, Q-metho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2010년의 1.226명에 비해 약간 상승을 하였지만(Statistics Korea, 2012), 여전히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현상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등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현재까지 저출산이나 출산기피 요인 또는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종교,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의 증가, 결혼 및 출산의 기피현상의 증가, 첫 자녀 성별

주요어: 자녀출산, 고등학생, Q-방법

Corresponding author: Baek, Kyoung Ah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Korea.
Tel: +82-10-8238-2228, Fax: +82-2-824-7961, E-mail: whiteka@hanmail.net

투고일: 2012년 11월 6일 / **수정일:** 2012년 1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월 7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이 있다. 여성들은 교육 기회의 증가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경향으로 출산과 육아, 가사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Lee, 2009). 결혼과 출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혼인 연령이 증가하고 미혼 인구와 이혼의 증가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ldieri & Paolo, 2012; Evens, 2010; Lee & Kim, 200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자녀의 필요성이 낮았으며(Kim, 2007), 결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나타났다(Kang, Byun, & Jung, 2005).

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수준, 여성의 출산휴가와 탄력근무 여부, 고용안정성 여부,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 여성의 일과 양육 양립의 어려움 등이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교육에 대한 비용의 증가로 출산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Bang, 2010; Kim & Oh, 2007; Kwon & Kim, 2004; Lee & Kim, 2009; Shin & Bang, 2008; Wheeler, 2011; Zamac, Hallberg, & Lindh, 2010),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산을 결정할 때 직업의 영향을 받으며 고용의 안정성 여부를 고려한다(Haan & Wrohlich, 2011; Lee, 2006; Lee & Kim; Sohn, 2005; Torr & Short, 2004).

가치관 요인은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가족가치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Bang, 2010; Jo & Kim, 2011; Kim, 2007; Lee, 2006; Shin & Bang, 2008).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증가하며, 자녀에 대한 애뜻함이 덜하고 개인주의의 결과로 인해 자녀 출산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Bang; Choi, 2006; Heo et al., 2004; Jo & Kim; Kim; Lee, Jung, Park, & Shin, 2009).

더불어 정책적 요인은 사회보험과 세제의 지원,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정부정책,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여부 등과 관련되며 세제의 지원과 혜택, 충분한 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원 등은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Bang, 2010; Castles, 2003; Duvander, Lappegard, & Andersson, 2010; Haan & Wrohlich, 2011; Lee & Kim, 2009; Sohn, 2005).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가 부족하기도 하며(Lee, 2009; Shin & Bang, 2008), 지금까지 출산과 양육을 개인적인 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는 저출산의 주요요인이며 출산 친화적·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출산장

려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Castles; Lee & Kim; Shin & Bang; Sohn).

이와 같이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그중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Kang 등(2005)은 교육비와 출산율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저출산 요인 중 양육비용보다는 가치관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Choi, 2006; Lee, 2006)고 하였다. 출산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보다는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생각이 출산 결정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어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이 자녀출산에 대하여 어떠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저출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기피요인이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인식정도나 지금까지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미혼여성이나 가임여성, 기혼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Baek & Lee, 2008; Do, 2011; Kim & Oh, 2007; Kim, Park, & Jo, 2011; Kwon et al., 2011; Lee, 2009)가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결혼과 출산, 결혼관이나 자녀관에 대한 인식 또는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연구(Jo & Kim, 2011; Kang, Jeong, & Hwang, 2006; Kim, 2007; Paeng, Kim, Kang, & Hong, 2007; Shin & Bang, 2008)가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해결을 위해, 가치관 형성이면서 가까운 미래에 성인사회로 진입하여 가족형성을 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출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와 태도·신념과 같은 주관성을 측정하여 사람들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들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출산을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 유형의 파악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성을 확산 및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녀출산에 대한 고등학생의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Q 방법론은 개별 심층면접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의 느낌, 의견, 선호, 가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대상자들의 유사한 속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Kim, 2008).

2. 표집방법

1)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Q 모집단은 저출산, 출산, 자녀 및 가족 관련 가치관 변화에 대한 문헌고찰과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대상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산, 자녀, 저출산요인, 출산장려정책 등에 대해 개방형질문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총 138개의 Q 모집단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통합하여 범주화하였고, 범주화과정에서 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고등학생이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진술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1인, 박사과정생 2인,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각 1인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0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2) P 표본 선정

P 표본이란 Q 분류를 할 수 있는 응답자로 생각될 수 있는 집합체로 P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어 Q 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가리킨다. Q 방법론은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으로 소표본 이론에 따르며, P 표본은 50명 내외로 한다(Kim, 2008).

본 연구의 P 표본은 경기도 S시의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 4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Table 1), 연구 시작 전 본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연구안학지원팀-5125)을 받았다.

3) Q 표본 분류 및 자료분석방법

Q 표본의 분류는 진술문을 연구대상자들이 강제 분포시키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진행하였다. Q 표본으로 선정된 각각의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P 표본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40개의 카드를 모두 읽게 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다음 읽은 후 자신의 견해에 따라 긍정과 중립, 부정 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하도록 분류하게 하였다. 긍정으로 분류된 진술문들 가운데 가장 긍정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에 따라 책상위에 놓인 카드 배열판에 카드를 +4점 척도부터 배열하도록 하였고 부정으로 분류된 진술문은 -4점 척도부터 배열하도록 하고 중립으로 분류된 진술문은 0점 척도에 분류하게 한 후 양극단에 놓인 진술문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가장 부정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긍정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코딩하였으며,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Q 유형의 형성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2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2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2.3%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을 보면 제1유형은 42.78%, 제2유형은 9.52%로 나타났다(Table 2).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유형간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계수는 .537로 나타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유형간 상관관계는 각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추출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Kim, 2008).

2. 유형별 특성

총 43명의 연구대상자 중 제1유형이 29명, 제2유형이 14명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클수록 그가 속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또는 이상적인 대상자임을 나타낸다(Table 1).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Type	Var no.	Factor weight	Gender	Age	Religion	Brothers & sisters	Satisfaction degree (5 scale)	Parents marriage state
Type 1 (n=29)	40	3.3680	F	17	None	1B & 3S	5	Marriage
	25	3.2669	M	18	None	1B & 2S	5	Marriage
	22	2.9534	M	17	Buddhist	3B	5	Marriage
	21	2.6838	M	17	Catholic	alone	-	Marriage
	5	1.9338	M	17	None	2B	5	Marriage
	39	1.5684	F	18	None	2S	4	Divorce
	24	1.4883	M	18	None	2B	4	Marriage
	23	1.3596	M	17	Protestant	1B & 1S	5	Marriage
	14	1.3386	F	17	Catholic	1B & 2S	5	Marriage
	17	1.2974	F	15	Protestant	alone	-	Marriage
	32	1.2951	M	18	Catholic	2B & 1S	4	Marriage
	18	1.2900	F	16	Protestant	1B & 1S	4	Marriage
	2	1.1582	M	17	Protestant	2B	4	Marriage
	11	1.1148	F	16	Catholic	1B & 2S	5	Marriage
	8	1.1131	M	17	None	1B & 1S	3	Marriage
	12	1.0637	F	16	None	2S	4	Marriage
	34	.9920	F	17	None	1B & 1S	5	Marriage
	4	.8675	M	17	None	1B & 2S	5	Marriage
	6	.9294	M	17	Catholic	3B	5	Marriage
	27	.9755	M	18	None	2B	5	Marriage
	7	.9013	M	17	Protestant	2B	5	Divorce
	37	.8790	F	18	None	2S	4	Marriage
	43	.8755	M	17	None	2B	5	Marriage
	10	.8369	F	16	None	2S	5	Marriage
	31	.7565	M	17	Protestant	2B	3	Marriage
	16	.6667	F	15	None	2S	5	Marriage
	15	.6516	F	17	Buddhist	1B & 1S	3	Marriage
	1	.6272	M	16	Protestant	1B & 1S	5	Marriage
	35	.4226	F	17	Catholic	alone	-	Marriage
Type 2 (n=14)	33	2.9486	M	18	Protestant	2B & 1S	3	Marriage
	13	2.2602	F	16	None	1B & 2S	3	Marriage
	20	1.8859	F	15	Protestant	1B & 1S	4	Marriage
	36	1.1484	F	17	Protestant	1B & 1S	5	Marriage
	28	1.0542	M	17	Protestant	2B	5	Divorce
	38	1.0023	F	18	Protestant	1B & 1S	4	Marriage
	42	.9671	M	17	None	alone	-	Marriage
	30	.9528	M	17	None	2B	3	Marriage
	26	.9248	M	17	None	2B	5	Marriage
	29	.8956	M	17	None	1B & 2S	4	Marriage
	19	.8917	F	15	Protestant	2S	4	Divorce
	9	.6380	F	16	Protestant	3S	4	Marriage
	41	.5804	F	17	Protestant	1B & 2S	3	Marriage
	3	.4581	M	17	None	1B & 1S	2	Marriage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Variables	Type 1	Type 2
Eigen value	18.3954	4.0953
Variance	.4278	.0952
Cumulative	.4278	.5230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Variables	Type 1	Type 2
Type 1	1.000	.537
Type 2		1.000

형의 표준점수와 다른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에 의해 산출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FOLS (family oriented life style, 가족중심적 생활추구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29명으로, 평균연령 16.9세, 남학생 16명과 여학생 13명이며, 종교는 기독교 7명, 천주교 6명, 불교 2명,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4명이었다. 형제자매가 없는 대상자는 3명이었으며 형제관계만족도는 평균 4.14점(5점 척도)을 나타냈다.

제1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한 항목은 ‘고통을 겪으며 낳아준 부모님이 존경스럽다($Z=1.42$)’, ‘새 생명의 탄생은 위대하고 성스럽다($Z=1.39$)’, ‘자녀는 부부 사랑의 결실이다($Z=1.38$)’,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Z=1.30$)’이었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는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Z=-2.32$)’, ‘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가 태어날까봐 두렵다($Z=-1.91$)’, ‘자녀양육은 귀찮은 일이다($Z=-1.69$)’, ‘자녀는 부부생활을 방해한다($Z=-1.66$)’이었다(Table 4). 또, 제1유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중 표준 점수 차이가 +1.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출산은 꼭 경험하고 싶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상상할 수 없다’, ‘아이를 보면 낳고 싶어진다’, ‘자녀출산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일이다’였으며, 표준 점수의 차이가 -1.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 ‘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자녀는 여가 생활에 제약을 준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힘든 일이다’이었다.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를 나타낸 연구대상자 40 (factor weight=3.36)은 17세의 여학생으로 1남 3여 중 셋째이다. 40번 대상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부부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대상자 25 (factor weight=3.26)는 18세의 남학생으로 1남 2여 중 첫째인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가치가 부여되는 일이다. 어릴 적 보살핌을 받던 부모님의 자식이 후에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증거이고 그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대상자 22 (factor weight=2.95)는 17세의 남학생으로 3남 중 첫째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꼭 해야 할 것 중에 출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된다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적 동의를 한 이유에 대하여 대상자 40은 “자녀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키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대상자 25는 “자녀란 성인이 된 후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존재이므로 걸림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상자 24는 “자녀는 부부사랑의 결실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대상자 22는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며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이이므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였다. 또, 대상자 21은 “자녀는 한 집안의 행복이며 모든 것이다. 자녀가 있기에 더 행복할 수 있으므로 그런 자녀가 돌림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녀는 또 다른 자신이고 자신의 일부이며 자신의 분신이다. 자녀양육을 귀찮게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대상자 5는 “자녀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웠을 때이다. 자식교육만 잘하고 관리만 잘한다면 절대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간의 유대감과 행복감을 가져오고 서로간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전혀 귀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FOLS (family oriented life style, 가족중심적 생활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부부중심, 무자녀형)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14명으로, 평균연령 16.7세, 남학생 7명과 여학생 7명이며, 종교는 기독교 8명이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6명이었다. 형제자매가 없는 대상자는 1명이었으며, 형제관계만족도는 평균 3.57 (5점 척도)이었다.

제2유형이 가장 강한 긍정을 한 항목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Z=1.61$)’,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Z=1.38$)’, ‘자녀양육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Z=1.23$)’, ‘자녀양육은 부모의 회생을 필요로 한다($Z=1.09$)’이었다. 반면 가장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가 없으면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없다($Z=-2.03$)’, ‘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가 태어날까봐 두렵다($Z=-1.73$)’, ‘출산은 꼭 경험하고 싶다($Z=-1.42$)’, ‘자녀출산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Table 4. Z-scores and Q-statements Descriptions for Type 1

No	Q-Statement	Z-score
7	I respect my parents for going through much pain to give birth to me.	1.42
2	The birth of a new life is great and sacred.	1.39
17	A child is the fruit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1.38
24	Maternal love is strong and great.	1.36
28	To become a parent is the worthiest in life.	1.30
20	A child can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1.17
29	Children are the nation's future.	1.06
34	When I see a child, I have the desire to have my own.	0.99
40	I would like my child to be healthy rather than academically-inclined.	0.99
37	It is right to have children.	0.80
39	A child is the fruit of my life.	0.76
26	The process of rearing a child is precious and makes parents happy.	0.73
1	A child is a precious being in that it links family lineage.	0.64
10	A child provides psychological comfort to his or her parents.	0.52
12	To have a child is to leave a part of yourself.	0.50
32	I would really like to experience childbirth.	0.49
8	I won't feel lonely in my later years if I have a child.	0.46
27	To have a child is the best thing in life.	0.32
3	Child-rearing require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0.32
22	Child-rearing requires parents' sacrifice.	0.11
14	To have a child is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0.07
30	I fear I will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0.06
21	In today's society, a child's safety and future cannot be guaranteed.	-0.07
33	I cannot imagine a family without children.	-0.11
36	I need someone I can rely on to help me rear a child.	-0.14
9	Child-rearing is economically burden some.	-0.30
5	Child-rearing is a difficult work.	-0.48
6	A child is an asset for future.	-0.58
35	A child restricts the leisure activities.	-0.63
25	It is difficult to have a stable work life if you have a child.	-0.82
13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child even if you get married.	-0.86
11	It is difficult to rear a child because of the lack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0.89
18	If you do not have a child, you will never fully be an adult.	-0.91
4	Child-rearing is a burden in preparing for requirement.	-0.95
15	It is difficult to have a social life if you have a child.	-0.96
23	I would rather to adopt a child.	-1.47
31	A child disrupts one's married life.	-1.66
38	It is troublesome to have children.	-1.69
16	I fear that I will give birth to a child of the sex I do not wish to have.	-1.91
19	A child may be an obstacle in my life.	-2.32

일이다($Z=-1.26$)’이다(Table 5).

제2유형에서 높은 인자 가중치를 나타낸 연구대상자 33 (factor weight=2.94)은 18세의 남학생으로 2남 1여 중 셋째이며, 연구대상자 13 (factor weight=2.26)은 16세의 여학생으로 1남 2여 중 둘째이다. 대상자 13이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결혼을 해서 부부끼리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의무가 아니며 꼭 낳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였고, 대상자 33은 “부부만이 생활해 나가도 충분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26은 “자녀를 양육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것이고 개인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대상자 13은 “자녀가 없다 해도 다른 가족구성원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부끼리만 사이가 좋고 행복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28은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다.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요소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상자 33은 “완전한 성인이란 개인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완전한 성인은 사회에 착실하고 도리있게 살아가는 성인이다. 자녀가 부모를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자녀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하여 자녀가 가족의 구성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진술하면서 부부간의 행복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상자는 20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간접경험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대상자 28은 “내가 태어날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견뎌내신 것 자체로 감사함을 표하며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고 진술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존경스럽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가족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미래에는 꼭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되며 현실에 만족하면서 부부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부부중심, 무자녀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간의 공통적 견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유형마다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과 관련하여 두 유형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 항목들은 Table 6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모성애는 강하고 위대하다($Z=1.52$)’, ‘고통을 겪으며 낳아준 부모님이 존경스럽다($Z=1.50$)’, ‘새 생명의 탄생은 위대하고 성스럽다($Z=1.26$)’ 등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 동의를 한 내용은 ‘자녀는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Z=-1.89$)’, ‘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가 태어날까봐 두렵다($Z=-1.82$)’, ‘자녀양육은 귀찮은 일이다($Z=-1.39$)’ 등의 항목이다. 즉, 고등학생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출산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에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공통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Z=.77$)’거나 ‘자녀양육은 부모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Z=.60$)’는 의견도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대상자의 주관성에서 출발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였다.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졌으며 이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가치부여를 하며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부부에게 있어 자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1유형은 가족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기본욕구를 채우게 되며, 출산을 통해 부모의 위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Shin과 Bang (2008)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88.1%가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제1유형 대상자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 등(2011)의 연구에서 출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수용형과 유사한 결과이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연구(Kim & Oh, 2007)에서, 자녀출산으로 인한 자신의 외모변화는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단란한 가족을 갖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스팅족형과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Paeng 등(200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학생보다 낮다고 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Table 5. Z-scores and Q-statements Descriptions for Type 2

No	Q-Statement	Z-score
24	Maternal love is strong and great.	1,69
13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child even if you get married.	1,61
7	I respect my parents for going through much pain to give birth to me.	1,59
40	I would like my child to be healthy rather than academically-inclined.	1,38
3	Child-rearing require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1,23
2	The birth of a new life is great and sacred.	1,12
22	Child-rearing requires parents' sacrifice.	1,09
9	Child-rearing is economically burden some.	0,92
30	I fear I will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0,86
20	A child can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0,84
29	Children are the nation's future.	0,75
5	Child-rearing is a difficult work.	0,64
21	In today's society, a child's safety and future cannot be guaranteed.	0,59
26	The process of rearing a child is precious and makes parents happy.	0,57
35	A child restricts the leisure activities.	0,55
17	A child is the fruit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0,51
8	I won't feel lonely in my later years if I have a child.	0,32
1	A child is a precious being in that it links family lineage.	0,29
28	To become a parent is the worthiest in life.	0,18
12	To have a child is to leave a part of yourself.	0,07
14	To have a child is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0,03
36	I need someone I can rely on to help me rear a child.	-0,04
25	It is difficult to have a stable work life if you have a child.	-0,09
6	A child is an asset for future.	-0,15
39	A child is the fruit of my life.	-0,31
10	A child provides psychological comfort to his or her parents.	-0,50
15	It is difficult to have a social life if you have a child.	-0,50
37	It is right to have children.	-0,55
11	It is difficult to rear a child because of the lack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0,64
34	When I see a child, I have the desire to have my own.	-0,69
4	Child-rearing is a burden in preparing for requirement.	-0,70
23	I would rather to adopt a child.	-0,76
31	A child disrupts one's married life.	-0,90
38	It is troublesome to have children.	-1,08
27	To have a child is the best thing in life.	-1,26
32	I would really like to experience childbirth.	-1,42
19	A child may be an obstacle in my life.	-1,47
16	I fear that I will give birth to a child of the sex I do not wish to have.	-1,73
33	I cannot imagine a family without children.	-1,93
18	If you do not have a child, you will never fully be an adult.	-2,03

Table 6.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No	Q-statement	Average Z-score
24	Maternal love is strong and great.	1.52
7	I respect my parents for going through much pain to give birth to me.	1.50
2	The birth of a new life is great and sacred.	1.26
40	I would like my child to be healthy rather than academically-inclined.	1.18
20	A child can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1.01
17	A child is the fruit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0.95
29	Children are the nation's future.	0.91
3	Child-rearing require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0.77
26	The process of rearing a child is precious and makes parents happy.	0.65
22	Child-rearing requires parents' sacrifice.	0.60
1	A child is a precious being in that it links family lineage.	0.47
30	I fear I will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0.40
8	I won't feel lonely in my later years if I have a child.	0.39
12	To have a child is to leave a part of yourself.	0.28
21	In today's society, a child's safety and future cannot be guaranteed.	0.26
14	To have a child is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0.02
36	I need someone I can rely on to help me rear a child.	-0.09
6	A child is an asset for future.	-0.37
25	It is difficult to have a stable work life if you have a child.	-0.46
15	It is difficult to have a social life if you have a child.	-0.73
11	It is difficult to rear a child because of the lack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0.77
4	Child-rearing is a burden in preparing for requirement.	-0.82
23	I would rather to adopt a child.	-1.12
31	A child disrupts one's married life.	-1.28
38	It is troublesome to have children.	-1.39
16	I fear that I will give birth to a child of the sex I do not wish to have.	-1.82
19	A child may be an obstacle in my life.	-1.89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의 출산과 관련된 주관성 변화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성장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유형의 대상자들은 자녀가 없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사회적 성인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한다(Kim, 2007)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를 낳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면서 부부간의 행복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Oh (2007)의 연구에서 43.2%의 대상자가 포함된 유형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정상적인 직

장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부부의 삶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딩크족형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출산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출산을 신비롭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가족이나 형제간의 관계만 족도, 방송매체 등의 영향으로 피하고 싶은 고통이나 부담으로 생각한다(Baek & Lee, 2008)거나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지만 임신과 출산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Kang et al., 2006)는 보고를 지지한다.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공부잘하는 아이보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성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자녀가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은 고

등학생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학업문제라는 보고(Ham & Park, 2005)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존중하는 생각과 모성애에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은 두 유형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서, 부모세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화목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부모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처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관과 가족관을 정립하여 자녀와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켜 가족의 소중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Kim (2007)의 연구와 같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가족접근적인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m (2007)은 청소년들의 결혼관, 자녀관 등 문화적 요인을 형성하는 가치관 교육은 출산을 제고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Do (2011) 역시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 자녀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가치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aeng et al., 2007).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바람직한 가족관, 자녀관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청소년들의 가치관,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Shin과 Bang (2008)도 청소년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고등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족의 역할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올바르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형성된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모님을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긍정적인 주관성 유형과 부정적인 주관성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긍정적인 주관성이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에서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화목과 소중함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족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산친화적인 사회인식 전환 및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 유형의 파악 및 특성을 분석하고, 출산에 대한 주관성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족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래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인 type 1: 'FOLS (family oriented life style, 가족중심적 생활추구형)'과 자녀출산과 양육을 부담스러워 하고 꼭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type 2: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부부중심, 무자녀형)' 등 두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한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유형을 탐색한 결과 고등학생들의 가족형성과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긍정적인 유형과 부정적인 유형이 함께 발견되었다. 고등학생의 긍정적인 주관성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과 교육 및 정책을 통해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출산장려 및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올바른 가족관 및 자녀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가치관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중심적 접근을 활용, 출산친화적인 교육 및 계몽을 하여야 한다.

REFERENCES

- Aldieri, L., & Paolo, V. C. (2012). Education and fertility: An investigation into Italia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9, 254-263. <http://dx.doi.org/10.1108/030682>

91211205686

- Baek, M. L., & Lee, K. S. (2008).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childbirth.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12, 92-103.
- Bang, Y. Y. (201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 209-227. <http://dx.doi.org/10.1177/09589287030133001>
- Choi, S. H. (2006). How to raise Korea's fertility rate. *Journal of Korean Women Economists Association*, 3, 67-92.
- Do, M. H. (2011).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 163-178.
- Duvander, A. Z., Lappegard, T., & Andersson, G. (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 45-57. <http://dx.doi.org/10.1177/0958928709352541>
- Evens, E. M. (2010). *Conceptualizing and testing a new measure of fertility intentions: A mixed methods exploration of factors that affect the achievement of childbearing pl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Haan, P., & Wrohlich, K. (2011). Can child care policy encourage employment and fertility?: Evidence from a structural model. *Labour Economics*, 18, 498-512. <http://dx.doi.org/10.1016/j.labeco.2010.12.008>
- Ham, J. Y., & Park, K. (2005). The relationships of stress, alexithymia and somatization of adolescents-focused on the high-school studen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18, 77-90.
- Heo, H., Hwang, J. Y., Kim, D. G., Lee, H. J., Sim, J. C., & Yang, H. S. (2004). A clinical study of pregnancy and delivery in pregnant women 35 years and older.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47, 458-463.
- Jo, S. C., & Kim, N. S. (2011). A study on the outlook on marriage and delivery will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21Century Social Welfare*, 8, 153-176.
- Kang, K. S., Byun, M. H., & Jung, E. M. (2005). A study on factor analysis of affecting low fertility using time-series dat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 127-145.
- Kang, P. S., Jeong, Y. K., & Hwang, T. Y. (2006). Perception and attitud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owards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0, 31-39.
- Kim, H. K.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 Kim, H. S., Park, J. S., & Jo, E. J. (2011).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ren of health care field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 131-146.
- Kim, K. S., & Oh, J. H. (2007). A study of attitude related to college women towards childbirt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15, 149-161.
- Kim, T. H. (2007). A scheme for prosocial marriage and child values of Korean primary and high school student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24, 15-24.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Retrieved June 14, 2012, from <http://www.kihasa.re.kr/html/jsp/>
- Kwon, H. J., Kim, Y. J., Kwon, S. J., Park, S. A., Ahn, Y. M., Lee G. S., et al. (201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 175-200.
- Kwon, Y. E., & Kim, U. C. (200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 211-226.
- Lee, K. S., Jung, S. J., Park, J. A., & Shin, Y. J. (2009). A study on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low fertilit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 93-108.
- Lee, M. R. (2009). Effect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on unmarried women's motivation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 75-96.
- Lee, S. S. (2006).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 96-140.
- Lee, Y. J., & Kim, J. I. (2009).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ow birthrate & occupation sensitive birth assistance programs for working women. *The Social Science Researches*, 35, 61-90.
- Paeng, K. Y., Kim, J. R., Kang, Y. S., & Hong, D. Y. (2007). The related factors of attitude toward childbirth among female students in junior, senior high school and university. *Journal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32, 63-73.
- Shin, H. Y., & Bang, E. R. (2008). Youth perceptions on childbirth & marriag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 95-113.
- Sohn, S. Y. (2005).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s for family-friendly policies. *Family and Culture*, 17, 285-316.
- Statistics Korea. (2012). *Demographics-population trends survey*. Retrieved June 11, 2012, from http://kosis.kr/abroad_01List.jsp?parentId=A
- Torr, B. M., &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 109-130. <http://dx.doi.org/10.1111/j.1728-4457.2004.00005.x>
- Wheeler, M. (2011). *Contemporary topics in low fertility: Late*

transitions to parenthood and low fertility in East As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Zamac, J., Hallberg, D., & Lindh, T. (2010). Low fertility and

long-run growth in an economy with a large public sector.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6, 183-205. <http://dx.doi.org/10.1007/s10680-009-9184-z>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current demographic, economic and other factors such as personal values and policies lower birth rate. In particular, youths' need for children and birth rate tend to be lower.

■ **What this paper adds?**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patterns in high school students'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ational and social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negative factors into positive ones. In order to maintain positive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apply family-centered educational programs and to implement birth-friendly and realistic programs for promoting childbirth.